

문닫고 나가라고?: 비논리의 논리

이 한규

(경희대학교)

Han-gyu Lee. 1999. "Mun tat-ko naka-la. 'Close the door and go out': The Logic of the Illogicality." *Linguistic Research* 17, 168-175. The Korean expression *mun tat-ko naka-la* 'Close the door and get out.' is said to be illogical because, if you close the door of a room first, then you cannot go out of the roo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illogicality of the expression is due to the wrong application of the temporal analysis of the connective *-ko* to it and that Korean language users have their own rational intention or motivation to use such an expression. (Kyung Hee University)

0. 머릿글

우리는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방을 나가거나(1가) 나오는(1나) 행위를 이룰 수 없고, 방을 들어가지도(1다), 들어오지도(1라) 못하며, 차를 타지도(1마) 내리지도(1바)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어미 '-고' 다음에 기술된 행위, (1가)를 예로 들면, 나가는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것은 문 닫기 전에 이미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을 닫은 후에 나가라는 (1가)와 같은 표현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 가. 문 닫고 나가라.

나. 문 닫고 나와라.

다. 문 닫고 들어가라.

라. 문 닫고 들어와라.

마. 문 닫고 타라.

바. 문 닫고 내려라.

그러면, 우리는 왜 (1)에서와 같은 비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은 표현들을 사용할까? 언어 사용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사용의

도가 존재한다. 즉, 화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 그 표현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러한 화자의 의도를 청자가 화자의 발화와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청자는 그런 화자의 믿음을 인식하고 화자의 의도를 추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1)의 표현들도 한국어 사용자들의 사용의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1)의 표현들이 언어사용측면에서 다분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진행은, 1절에서 연결어미 '-고'에 대한 기존 분석을 먼저 소개하고, 연결되는 두 행위들의 관계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설정하려고 하는 기존분석을 (1)의 예들에 적용시킨 결과로 (1)의 비논리성이 유발되었음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1)의 예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글이 뒤따른다.

1. 연결어미 '-고'의 의미

일반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황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연결하는 '-고'는, 그 쓰임 면에서, 연결되는 상황이나 사건들 간에 시간적인 관계를 갖으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공간나열과 시간나열로 나뉜다. 공간나열은, 아래 예 (2)에서 보듯이, 연결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전혀 시간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단순히 별개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그 여자가 예쁘다'는 것과 '그 여자가 똑똑하다'는 것(2가), 그리고 '영희가 노래를 잘 한다'는 것과 '순이가 말을 잘 한다'는 것(2나)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관계도 나타나 있지 않다.

(2) 가. 그 여자는 예쁘고 똑똑하다.

나. 영희는 노래를 잘하고, 순이는 말을 잘한다.

반면에, 시간나열이란 기술되는 사건 또는 상황들 사이에 시간적인 연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술되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동일 시간대에 일어나는 경우를 동시나열이라 하고, 연결어미 '-고' 앞에서 기술된 사건이나 상황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고' 뒤에 기술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를 순차나열이라 한다. 예 (3)는 동시나열의 예로서, 리어카를 끄는 것과 돌밭에 들어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순차나열의 경우인 예 (4)는 밥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간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 동시나열: 짐꾼들은 벌써 리어카를 끌고 돌밭에 들어섰다.

(4) 순차나열: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남기심(1994)에서는, 시간나열에 속하기는 하지만, '선행 절의 행위와 후행 절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있음을 나타 내기보다는'(남기심 1994:35) 선행 절의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후행 절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컬어 상태지속나열이라 분류하고 동시나열 또는 순차나열과 구분하였다. 예 (5)에서 보면, 이 문장의 해석은 가방을 드는 행위를 하고 나서 내려놓고 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순차나열) 아니고, 가방을 드는 행위와 가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동시나열)도 아니다. 적절한 해석은 가방을 드는 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의 결과로서 가방을 들고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5) 상태지속나열: 이 가방은 태호가 들고 가라.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연결어미 '-고'의 의미는 대체로 네 가지, 즉, 공간나열, 동시나열, 상태지속나열, 순차나열로 분석한다. 이러한 '-고'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예 (1)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예로 (1가)를 보면, 이 예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문을 닫은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닫힐 문이 달린 방과 나갈 공간이 다른 경우이다. 즉, 어떤 방의 문이 열려있고 청자는 그 방 바깥쪽에 있으며, 청자가 현재 서 있는 그 방 바깥쪽 공간(예를 들면, 거실 또는 집)으로부터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가 그 방문을 먼저 닫고 (거실 또는 집을) 나가라는 의도로 (1가)를 발화한 것이다. 이 의미는 연결어미 '-고'의 분석에 의하면 순차나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분석에 의해 설명되는 해석이다.

(1가)의 두 번째 해석은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해석으로, 청자가 닫을 문이 달린 방과 나갈 방이 동일한 경우이다. 즉, 청자는 현재 방안에 있으며, 그 방에서 나가려고 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나가려거든 문을 닫고 나가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연결어미 '-고'의 네 가지 해석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문 닫는 행위와 나가는 행위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기술되는 공간나열 해석도 안되고, 문 닫는 행위와 나가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동시나열 해석도 안 된

다. 문을 닫은 후에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차나열로 해석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일단 방문을 열고 문을 통과해 방안에서 밖으로 움직여야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방문을 닫고 나면 그 방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가)를 상태지속나열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문을 닫는 행위를 행한 후에 문이 닫힌 상태가 지속되면서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순차나열 해석의 경우에서도 말했듯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그 방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왜 (1)과 같은 비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은 표현들을 사용하는가? 결론적으로, (1)과 같은 표현들이 비논리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고'에 대한 기존 분석에 따라 연결되는 두 행위들을 시간적인 관계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예 (1)의 표현들은 연결되는 두 행위가 단순히 시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한국어 사용자들이 어떤 의도로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겠다.

2. 화용적 분석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는 폐쇄된 공간을 전제로 한다. 이 폐쇄 공간에는 안밖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 생활에서 대체로 문이 그 역할을 한다. 문이란 열리고 닫히게 되어있고, 열리면 폐쇄 공간을 밖과 연결시켜주고, 닫히면 그 공간을 밖으로부터 차단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에는 문을 열고 닫는 행동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즉,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는 1) 문을 열고, 2) 문이 열려 생긴 공간을 통과하고, 3) 문을 닫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의 세 단계 구성요소 모두 문을 매개로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에서 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

한국어 사용자는 이러한 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문에 어떤 행위가 가해져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¹여기서 '구성요소'라는 것은 동사 '나가-' 또는 '들어오-'의 하위범주(subcategoriza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위범주라 함은 '문 열고', 또는 '문 닫고'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가-' 또는 '들어오-'는 '나가라.' 또는 '들어와라.'처럼 혼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요소'를 통사적인 '하위범주'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글에서 '구성요소'라 함은 '나가-'라는 동사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부분행위들을 가리킨다.

나가는 행위를 예로 들어, (6) 또는 (7)을 말할 때, 화자는 청자의 문을 여는 행위와 방을 나가는 행위, 또는 문을 닫는 행위와 나가는 행위를 (2-5)의 경우처럼 별개의 독립적 행위들의 결합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즉 어떻게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즉, 문을 여는 행위 또는 닫는 행위는 나가는 행위의 구성요소로서, 화자가 이 행위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6) 문 열고 나가라.

(7) 문 닫고 나가라. (=1가)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나가고 들어가는 구성요소 중 왜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소, 즉 문을 여는 행위와 닫는 행위만 특별히 언급을 하는가? 문이 열려 생긴 공간을 통과하는 행위는 왜 특별히 언급하는 표현이 없을까? 이유는 분명하다. 문이 열려 생긴 공간을 통과하지 않고서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이 열려 생긴 공간을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 열린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면, 문이 열려야만 문이 없는 벽을 (투명인간처럼) 투과해서 나갈 수도 있다면, 그런 세계에서는 열린 문을 통과해서 나갈 지, 벽을 투과해서 나갈 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린 문을 통과하는 행위는 나가는 행위에서 언제나 전제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 통과하는 행위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닫는 행위는 다르다. 대체로 우리는 문을 여는 행위와 문을 닫는 행위가 동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문을 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할 필요는 없다. 문을 열어놓고 나갈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문을 닫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이 연 문을 닫는 것만은 아니다. 누군가 열어 놓은 문을 통과하고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자에 의해 문을 여는 행위와 닫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행위를 기술할 때 문을 닫거나 여는 행위를 상황에 따라 특별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것은 (6)과 (7)이 쓰이는 상황을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우선, 청자가 나가는데 있어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화자는 (6) 또는 (7)을 발화하지 않는다. 화자가

문이 문을 열거나 닫는 것을 언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6) 또는 (7)이 아니라 (8)이 자연스럽다.²

(8) (방에서) 나가라.

나가는 행위를 기술할 때 의도적으로 문을 언급하는 상황에는 반드시 화자의 목적이 있다. 예 (6)의 경우, 첫째, 화자가 청자에게, 나가면서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놓은 채 두라고 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문을 열어 놓으라는 화자의 의도는, 예를 들어, 방이 너무 덥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문 밖을 살피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나가는 청자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방도 좁은데 문을 꼭 닫고 다니는 청자의 습관을 알아서 일 수도 있다. (6)이 발화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은 화자가 청자에게 다른 방법이 아닌 문을 통해 나가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즉, 청자가 창문을 넘어 나가려고 하거나, 초능력을 이용해 순간적인 공간이동을 하여 나가려고 할 때, 화자는 청자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금지시키면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6)을 발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문을 반드시 닫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청자는 문을 열어 놓고 갈 수도 있고, 문을 닫고 갈 수도 있다. 화자의 목적에 중요한 것은 문을 통해 나가라는 것이다.

예 (7)이 쓰이는 상황은, 첫째, 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청자에게 나가면서 그 문을 닫도록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문이 닫혀있고 청자가 그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 경우로, 화자는 청자가 문을 닫지 않고 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7)을 사용한다. 청자가 문을 열어둔 채 나갈 지고 모른다는 두려움을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청자가 문을 열고 다니는 습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거나, 대인 기피증이 있어 열린 문으로 누군가 들여다볼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 (1, 6-7)과 같은 예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와

²차를 타고 내릴 때 사용하는 발화도 마찬가지이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i)과 같이 발화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청자가 귀족적인 생활만 해서 스스로 차 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화자가 알고 있을 경우, 문을 닫아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문닫을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1마, 1바)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청자가 열린 차창으로 차를 내리려는 것을 화자가 보았을 때, 차 문을 열고서 내리도록 의도할 경우에는 ii)를 발화한다.

i) 가. 타라.

나. 내려라.

ii) 문 열고 내려라.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언어사용자가 독립적 행위들의 시간관계에 의한 결합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즉 나가고 들어가는 행위가 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언어사용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대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지만, 전통 한옥은 대문을 집 안에서만 걸어 잠글 수 있었다. 따라서, 요즘 우리들은 (9)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대문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없었던 옛날에 (9)의 표현은 사용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문 밖에서 잠그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³

(9) 문 잠그고 나가라.

3. 맺는 글

비논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1)과 같은 표현들이 실제로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합리적 사용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논리적인 표현임을 보였다. 즉, (1)의 예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연결어미 '-고'와 더불어 표현되는 행위들을 독립적인 행위로 보고, 이들 행위를 시간적인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기존의 분석 방법을 (1)의 표현에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의 표현들에서 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는 나가거나 들어가는 행위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언어사용자가 나가거나 들어가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를 나가거나 들어가는 행위와 함께 언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관계 속에서 (1)의 표현들을 해석하면 안됨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연결어미 '-고'에 대한 기존의 분석이 잘못되었으니 (1)과 같은 표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미 제시된 '-고'의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지 않은 현상들 중의 하나인 (1)을 설명해 보임으로써,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표현은, 비록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어사용자가 그렇

³ 의명의 논평자가 어떤 공간에서 나갈 때 '나가'의 의미는 그 출입문의 열리고 닫히는 반경에서 멀어지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나가는 행위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반경의 공간을 벗어나는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열린 공간을 통과하여, 문이 열려있는 또는 닫힌 상태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반경의 공간 안에서 있어도 나가는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 사용하게된 동기 또는 의도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우리 말에 존재하는 많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의 논리성을 설명해야 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기심. 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고, -어서, -니까, -다가'의 의미 통사적 특징. 서광학술자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449-701
Email: hglee@nms.kyunghee.ac.kr
전화: +82-331-201-2252

접수일자: 1999. 10. 12.
게재일자: 1999. 10. 19.